



‘쉬운 글과 그림으로 보는 자연 이야기’

우리 곁에서 사라져 가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국립생태원 엮음
소소한소통 쉬운 글·그림

본문 96쪽 / 비매품 / 판형 215x290mm
2021년 12월 29일 출간

“많은 야생동물들은 왜 멸종위기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자연과 사람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에 대해 생각해 보아요.”

1. 국립생태원이 쉬운 정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쉬운 글과 그림으로 보는 자연 이야기’ 시리즈는 국립생태원이 출간한 다양한 도서들이 가지고 있는 생태와 관련된 정보와 가치들을 쉬운 말과 그림으로 풀어 발달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노인, 청각장애인 등과 함께 나누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2. <우리 곁에서 사라져 가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기획 의도

이 세상에 없어져도 그만인 생물은 없습니다. 모든 야생의 생물들은 생태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도토리가 열리는 참나무가 멸종한다면 도토리와 참나무 수액을 먹이로 삼는 동물들, 도토리와 참나무에 알을 낳는 곤충도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힘들어 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종류의 생물이 멸종하면 다른 동식물들도 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생태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야생동물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멸종되기도 하지만 최근 몇 세기 전부터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나 생태계 파괴 등의 이유로 멸종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사람의 영향도 큼니다. 무분별한 야생동물 포획, 점점 빨라지는 개발로 인해 서식지를 파괴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도 큰 원인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야생동물 20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라져 가는 야생동물들의 생태와 특징들을 알아보며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기를 희망하며 도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3. <우리 곁에서 사라져 가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특징점

- 우리나라에서 이미 사라졌거나 사라지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30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세밀한 그림과 인포그래픽을 활용하여 야생동물의 생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흥미로운 특징들을 그림과 쉬운 이야기로 소개합니다.
-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사라져 가는 원인과 극복을 위한 노력들을 알 수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감수 내용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곁에서 사라져 가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본문 구성1 - 생태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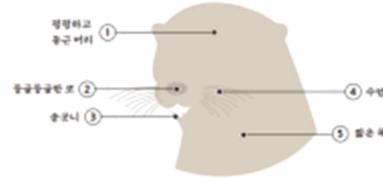
물속의 질서를 관리하는 수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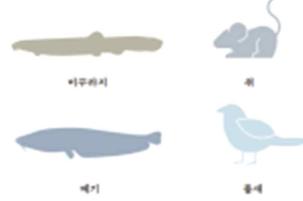
수달과 배달을 뱀잡히는 사람이 많아요. 수달은 얼트러서 수영을 하고 이빨로 물고기를 잡아 먹어요. 배달은 누워서 수영을 하고 조개를 물로 꺼서 먹어요. 우리나라에는 배달은 없고 수달만 살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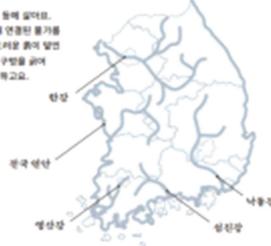
생김새 목이 짧고 두갈래로 갈라진 꼬리, 생김새가 귀여워요.



먹는 것 물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데, 배기, 더무라지처럼 배달이 없고 작은 물고기를 좋아해요.



사는 곳 호수, 냇물, 작은 강 등에 살아요. 그늘 밑과 물이 맑게 흐르는 물가를 가장 좋아해요. 부끄러워 혼자 달린 나무뿌리나 낙엽을 수발을 굶어 움직임을 관찰하기도 해요.



<우리 곁에서 사라져 가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본문 구성2 - 특징 및 보호 이야기



육지와 물속을 자유롭게 오가요.

땅과 물에서 모두 잘 살 수 있는 수달은 물속 생활에 알맞은 특징을 가졌어요. 짧은 네 개의 다리와 발가락 사이의 물갈퀴가 수영을 할 때도 도와줘요. 특히 기다란 꼬리는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도와줘요.



털이 수달을 지켜줘요.

수달의 털은 겉 털과 속 털이 달라요. 겉 털은 몸이 젖지 않도록 도와주고 속 털은 몸의 온도를 지켜줘요. 물에서 나오면 몸을 흔들어서 물기를 털어내요. 풀이나 배초 위에 몸을 비벼거나 이빨과 혀, 앞발로 털을 손질해요.

수달을 살리기 위해 물을 깨끗하게 해야 해요.

수달은 물이 오염되어 살기 힘들어졌어요. 수달의 가족을 갖기 위해 사람들이 사냥을 하기도 했고요. 강과 강 사이를 이동하다 교통사고로 죽기도 해요.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에 수달이 걸려 죽을 때도 있어요.

수달을 살리기 위해서는 강, 호수의 물이 깨끗해야 해요. 또한 그물을 설치해 물고기를 잡는 일은 없어야 하고요. 도로를 건너는 수달이 차에 치이는 일이 없도록 사람들이 조심해야 해요.

